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1년 4월 1일 (월) 제 804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조 영 철 · 편집인/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부활절
설교

닭 울음소리가 들리거든

<마태복음 27장 3~5>

김 근식 목사 (한사랑교회)



하나의 사건을 이해하는데도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27장3절에 가롯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회개했다고 해석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말은 회개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후회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뉘우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자각이 있을 때 사람은 뉘우침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베풀 끝으로 몰아세우면 자신이 생각한 각본대로 일이 진행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각본은 썩어빠진 종교지도자들과 로마의 지배로부터 나라가 해방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뺨을 맞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어도 그 험한 꼴을 다 감당하십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의 선택은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죄를 자각한 다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의 인생 후반전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에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리더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입니다. 후회는 자기 혼자 하는 것이고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면 자기성찰로 시작되어 같아 보이지만 뒤로 가면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지지만, 후회는 더 깊은 좌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회개라 할 때 지, 정, 의를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회개를 풀어 설명하자면 회개의 먼저는 지적인 회개입니다. 시편32:5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였는데, ‘자복’ 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숨기지 않는다’ 는 말은 핑계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적인 회개입니다. 죄를 인정한 후에는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과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

리의 회개는 죄의 목록만 나열하고 감정적으로 뉘우치기는 하는데, 정작 의지적인 회개가 결여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끝으로 의지적인 회개입니다.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회개는 변화가 있지만 후회는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고 후회는 과거만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단하는 것이고 후회는 한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품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죄를 나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보혈의 은혜로 씻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죄를 끊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완전히 뱉어내고 보혈의 피로 씻김 받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었습니다. 그는 뉘우치고 용서받은 베드로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후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뉘우치고 실망하고 멸망을 선택한 유다의 인생은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유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들어갈 틈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돈 앞에서 양심을 팔 수 있고, 말씀을 버릴 수 있고, 예수님도 버릴 사람들입니다. 돈 앞에서 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베드로는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통곡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는 돌아섬이고 다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함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 닭 울음소리가 들리거든 주님이 생각나서 주님께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ルツ結婚相談所

在日韓国人・帰化人、結婚・再婚を望んでいる人へ
年齢 23歳～70歳まで、北海道から九州まで

親身になってご成婚までねばり強くお世話を
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気軽にお電話ください。

090-3429-9707 代表 崔貞淑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원로목사와의 대담

<양형춘목사의 90년 인생>

진행 담당 : 정연원목사 <2021年 3月13日/土>



젊었을 때의 양형춘목사

●鄭牧師 : 복음신문 특집 원로와의 대담 기획으로 원로 양형춘목사께서 대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90세를 맞이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90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출생과 어린 시절을 소개해 주십시오.

●楊牧師 : 1931년 4월6일 지금의 함경북도(咸鏡北道) 함흥

(咸興)에서 태어났고, 조부모님과 부모님, 여동생 3명 가족으로 공무원인 아버지와 함께 한반도의 제일 북동쪽에 위치한 아오지(阿吾地)에서 어린시절을 보냈어요. 일제 치하에 있던 1930년대 탄광을 시작으로 하는 광공업 개발이 진행되었고, 일본 질소비료 공장과 인조석유 제조를 하였고 때문에 기술자와 가족, 일본인 거류자도 많았고, 북한의 통치하에서도 광업, 화학공업의 거점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생활한 것이 기억납니다.

●鄭牧師 : 신앙생활에 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楊牧師 : 함흥중앙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함흥은 원래 미국복장로교가 전도를 시작한 지역으로 1898년도부터 캐나다 선교부가 선교활동을 열심히 하여 많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도 있었어요. 해방이 되던 1945년 8월15일(수)을 맞이하면서 당시 주일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책임을 느끼신 이권찬목사는 자신의 불찰로 인한 것이니 교회를 사임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고, 교회는 이것을 반려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실한 목회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鄭牧師 : 함흥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것에 대해 말씀을 주십시오.

●楊牧師 : 6.25 동란(同亂)이 일어나고 중공군(中共軍)이 참전함으로써 전세가 악화되면서, 1950년 12월 15일부터 25일 성탄절 기간 북한 주민들과 미군 1해병사단과 피난민 1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구출시킨 것은 동란 중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당시 미국 제10군단장(軍團長) 에드워드 맬러리 아먼드(Edward Mallory "Ned" Almond) 장군을 설득한 현봉학 고문관(顧問官)은, 내가 다니던 함흥고보(咸興高普) 출신인데 함흥 영생학교 교목을 지낸 현원국(玄垣國)목사의 아들로,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의사로 일하다가 전쟁이 일어나 고문관으로 일하던 중에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자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피난민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여 여러척의 군함과 민간함을 동원하여 흥남부두(興南埠頭)에서 출발하는 피난선을 타고 남한으로 내려 가게 되었는데 부모님들이 아들 하나라도 살아야 한다고 하셔서 혼자 배를 타게 되었어요. 도중에 큰 풍랑을 맞아 파선의 위기도 있었는데 어려움 중에도 찬송을 하며 거제도에도 도착을 하여 피난민 생활을 시작했지요.

●鄭牧師 : 피난민생활과 신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을 주

십시오.

●楊牧師 : 거제도에는 북한군 포로수용소와 피난민 집단촌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신생숙(新生宿)이라는 기독교 시설을 만들어 성경과 신자들의 생활을 지도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 때 강원용(姜元龍)목사를 강사로 집회를 하게 되었죠. 그때 큰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당시 부산에 피난 중이었던 "조선신학교(朝鮮神學校/現韓國神學大校)"에 입학을 하여 공부를 하였죠. 그때 영향을 주셨던 분들은 김재준(金在俊), 김정준(金正俊), 서남동(徐南同)목사입니다. 김정준목사의 일화 중 하나는 신학교 예배시간(채플) 설교 담당인 것을 잊어버리셨다고 하시면서 그 설교 준비를 못하셨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읽으시기만 하셨는데 학생들은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진실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鄭牧師 : 목사가 되어 첫 목회에 관한 말씀을 주십시오.

●楊牧師 : 대한예수교장로교 목사가 되어 첫 사역은 1902년에 설립된 기독교 학교인 대구 신명여고의 교목으로 시작을 했으니 학원목회를 하게 되었지요. 가장 보람을 느낀것은 청소년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드리며 예수를 믿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당시 교장을 역임하신 신후식목사와 교사들의 도움으로 활발하게 학원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 일이고, 동시에 1966년 3월10일 경북노회에서 청산교회 설립을 허락을 받아 개척교회를 시작하여 일본 유학을 떠나 오기까지 4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교회를 건축, 입당(1968년7월21일)하고 당회가 만들어지고 신후식목사님께서 2대 목사로 부임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목회를 충실히 하였습니다.

●鄭牧師 : 일본에 오신 동기와 일본선교에 관해 말씀을 주십시오.

●楊牧師 : 1969년 12월말로 신명여자고등학교 교목과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대구청산교회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좀더 깊은 신학적인 준비를 위해 동경신학대학 대학원에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4명이 있었지만 더 늦지 않은 시기에 연구할 필요를 느끼고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동경신학대학에서 학업 중에 橫濱教會에서 설교목사의 부탁을 받고 봉사를 하던 중에 제일대한국독교회의 지도자들과 교류를 하던 중에 일본선교사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신 연동교회 김형태목사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일본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鄭牧師 : 제일대한국독교회의 목회에 관해 말씀을 주십시오.

●楊牧師 : 관동지방회 橫須賀教會는 일제하인 1932년 설립된 역사가 있는 교회였는데, 1969년 10월부터 1974년 2월까지 섬기다가 경도교회(京都教會)의 청빙을 받고 1974년 3월28일 부임하여 1993년 10월11일까지 약 20년간 목회를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 김재술, 유석준장로님과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경도교회 50주년 행사로부터 경도남부교회의 분립, 向上社保育園의 사회복지법인 취득과 건축을 통해 지역을 섬기는 일은 보람이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도교회 부임을 하고 예배당에 에어컨 설비를 해야 하는데 교우께서 자신을 밝히지 않고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을 하였습니다. 교우들 중에는 왜 현금한 사람을 밝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여 목회자가 곤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鄭牧師 : 경도교회를 사임하시고 미국으로 가시게 되셨는데 과정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楊牧師 : 경도교회를 사임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의 책임을 맡아 달라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어 우선 객원 교수로 몇 개월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교 상황이 매우 어려웠어요.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에 있던 친구들이 집회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마치고 나서 교회가 청빙을 하겠다고 하여 무척 당황을 하였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장로교회(PCUSA)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건축을 교우들과 함께 한 것은 보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장로교회 소속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에 가서 담임목사 청빙을 돕는 역할도 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는 목회였다고 생각합니다.

●鄭牧師 : 재일대한기독교회와 미국장로교회의 목회는 고국을 떠나 사는 이민, 디아스포라 목회라고 합니다만 어려움이나 목회의 중심을 어디에 두셨는지요?

●楊牧師 : 이민 목회와 在日교회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문화를 떠나 다른 곳에 살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고 돕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매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했고, 미국교회는 총회 재정국이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역할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립하고 목회자가 용기를 잃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을 재일대한기독교회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鄭牧師 : 미국에서는 몇 년간 생활을 하였고 일본으로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楊牧師 : 미국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교회 개혁과 성장과정을 거쳐 건축을 하게 되었고 매우 안정적인 교회가 되었고, 나이가 들게 됨에 따라 건강이 약화되는 부분도 생기게 되면서 4명의 자녀들도 일본에 오는 것을 권유해 주어서 다시 일본생활을 편안하게 하게 되어 매우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鄭牧師 : 일평생 기독교인으로 목회자로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楊牧師 :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각 불쌍히 여겨 주시는 도움을 받아 살면서 독생자를 주셨음에 대한 절대적 고백을 통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鄭牧師 : 후손들, 후배들에게 남겨 주고 싶은 말씀은?

●楊牧師 : 신앙생활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형성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 잘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는데, 앞에서 말한대로 우리의 선배들이 남겨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일제 하에서, 혹은 해방이 되면서 매우 어수선한 시절에 목사로서



재일대한기독교회 창립 80주년시(양형준목사), 90주년시(경혜중목사), 100주년시(정연원목사), 110주년시(김중현목사)의 각 총회장—전국교회 여성연합회 창립70주년 기념식전에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목회 사임을 표시하셨던 이권찬목사를 잊을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이것이 내 신앙이구나” 하는 것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기 반성을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고 목회자가 가질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교우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가장 힘든 것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단면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鄭牧師 : 목회자에게 친구나 동료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십시오.

●楊牧師 : 목회를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인데, 내가 경도교회의 청빙이 있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경도교회는 준비된 목회자가 가서 목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대와 염려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내 맘 속에서도 내가 청빙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 보란 듯이 성과 있는 목회를 하겠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요. 이런 것이 교만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목회에 있어 신앙 동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자기 희생을 통해 동료를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은 동료나 친구뿐만 아니라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鄭牧師 : 몸이 많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끝으로 자녀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楊牧師 : 정말로 가족들에게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과분한 것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도한 만족을 주셨고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한가지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되며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5지방회 정기총회 안내

<關東地方会 第72回 定期總會>

·日時 : 未定
 ·場所 : 未定

<中部地方会 第58回 定期總會>

·日時 : 2021年 5月 4日 (火)
 ·場所 : 豊田めぐみ伝道所

(愛知県豊田市保見町南山1275-1、TEL0565-48-2551)

<關西地方会 第72回 定期總會>

·日時 : 2021年 5月 5日 (水) 10 : 00
 ·場所 : 大阪教会 (大阪市生野区中川西2-5-11、TEL06-6712-3377)

<西部地方会 第37回 定期總會>

·日時 : 2021年 4月 29日 (木) 10 : 00
 ·場所 : 神戸東部教会

(兵庫県神戸市中央区日暮通6-4-8、TEL078-241-5253)

<西南地方会 第71回 定期總會>

·日時 : 2021年 4月 29日 (木) 11 : 00
 ·場所 : 福岡教会 (福岡市博多区千代5-11-48、TEL092-641-9551)

関西聖書神学院

2020년도 졸업식 거행 금년도 2명이 졸업, 연구과에 진학

2020年度 関西聖書神学院 卒業식이 3月21日 午後3時、本校舎(大阪北部教会)에서 举行되었다. 今年에도 昨년에 이어 世界的으로 伝染이 拡大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影響으로 卒業生과 関係者만 모여 卒業式을 举行하였다.

卒業礼拝는 本神学院의 教務인 趙永哲牧師(大阪北部教会)의 司會로 시작되었고, 学院長인 金武士牧師(西成教会)가 「信じる事, 知っている事, 考える事(믿는 것, 아는 것, 생각하는 것)」 이라는 메시지를 伝했다.

그 後, 繼續해서 学院長 金武士 牧師에 의해 卒業證書 授与와 関西地方会 副會長인 許伯基牧師(京都南部教会)로부터 祝辞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本神学院의 理事長인 全聖三牧師(布施教会)의 祝禱로 卒業礼拝를 마쳤다.

今年度에 卒業한 神学生은 本科 卒業生으로서 朴明順(大阪北

部教会), 車有吾(京都教会) 2名이었다. 이들은 繼續해서 研究科에 進学해 더욱 깊은 神學을 배우고 싶다고 抱負를 전했다.

関西聖書神学院은 1984년에 在日大韓基督教会에서 섬길 人材養成, 教会奉仕를 위한 信徒教育和 訓練, 그리고 神學形成을 위해 関西地方會를 中心으로 設立된 以來 오늘에 이르고 있다.

(報告 : 趙永哲牧師)



유학 소식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생활과 군 장교생활을 마치며

고 대 한



유학생활을 하면서

할렐루야! 복음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부턴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주어져 대학교 4학년 때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어 다시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여 대학을 졸업 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신학을 배우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학문을 배우며 많은 과제에 치우치기도 하면서 교회 중고등부 사역 그리고 유치부 사역까지 준비하며 정신없이 생활했던 거 같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역에 망설임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변 신학생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면서 알아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설교는 학교 강의실에서 혼자 연습에 연습을 더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결코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역과 학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고 또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단련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셨으며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저는 대학원을 마친 후 학사63기로 육군 장교로 군 입대를 했

습니다. 임관하기까지 4개월간 군사기초훈련을 받고 임관 후 또 4개월간 군사훈련을 총 8개월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체중감량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진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부대 배치가 되고 군에 있으면서 군 특유의 조직문화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장교로 군 생활을 하겠다고 했을까?' 라는 후회도 하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장교로서의 리더십과 책임감을, 사명으로 군 생활을 했으면 느끼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았던 추억조차 모두 좋은 추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면서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다짐

저는 올해 6월말에 3년 4개월에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합니다. 약 8년 가까운 한국생활을 마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시며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내가 너를 지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붙잡고 앞으로도 씩씩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公告《總會獎學生 募集案内》

總會神學生として各地方會にて認定され、1年を経過した者が申請できます。書類は總會事務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募集人員 : 3名

○支給金額 : 年額 200,000 円 / 1人

○支給期間 : 1年間 (受給者は、繼續して新たな申請必要)

○必要書類 : ①奨学金申請書 ②在学証明書 ③成績証明書 ④履歷書 ⑤堂會長推薦書 ⑥總會神學生認定書 (各地方會試取部) ⑦各地方會會長承認書

○書類提出先 : 總會事務局

○締め切り : 2021年4月30日必着